

# 1823년 풍덕부·개성부 합병과 현실비평가사 「송양별곡(崧陽別曲)」

김아연\*

##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송양별곡(崧陽別曲)」의 창작 배경
- III. 「송양별곡(崧陽別曲)」의 작품 성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송양별곡(崧陽別曲)」의 창작 배경, 작품 성격을 구명하는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작자 미상의 「송양별곡」은 표면상 송양(崧陽), 곧 개성(開城) 유람을 재현한 기행가사, 개성 성균관 유생과 자하동(紫霞洞)·채하동(彩霞洞) 선비에게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학문을 권장한 권학가사를 표방한다. 하지만 「송양별곡」은 1823년(순조 23) 7월 25일 개성부(開城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풍덕부(豐德府)·개성부(開城府) 합병, 여기에서 파생된 사건인 1824년(순조 24) 2월 풍덕향교(豐德鄕校) 철폐를 배경으로 하며,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주도한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개성유수 김이재(金履載)를 비판한 19세기 현실비평가사이다. 「송양별곡」의 이러한 독특한 성격은 넓게는 사유(士儒), 좁게는 풍덕향교 복설운동 참여 유생(儒生)으로 추정되는 작자의 정치 참여의식, 비판의식 및 작자가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 일반연구위원.

주제어: 송양별곡, 현실비판가사, 송양, 개성, 풍덕부·개성부 합병, 풍덕향교 철폐, 풍덕향교  
복설운동

## I. 머리말

1823년(순조 23) 7월 25일에 조선 정부는 구경(舊京)인 송양(崧陽), 곧 개성부(開城府)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풍덕부(豐德府)를 혁파하고 개성부에 예속하였다.<sup>1)</sup> 「송양별곡(崧陽別曲)」<sup>2)</sup>은 풍덕부·개성부 합병, 이 사건에서 파생된 1824년(순조 24) 2월 풍덕향교(豐德鄉校) 철폐<sup>3)</sup>를 배경으로 하는 현실비판가사이다.

「송양별곡」 원본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지만, 「송양별곡」 필사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는 19세기 후반 필사본 한글가사

- 
- 1) 豐德府界, 近在松都五里之許, 壤土相錯, 故曾在太宗朝十三年, 以豐德合屬於松都, 後復設邑, 則到今罷守而竝府, 事有可據, 分司經用, 例皆取用於本府餉穀儲置中, 今此新劃邑土地, 既屬於分司, 則其正稅, 自當依例添餉, 大同亦爲仍留儲置, 如是則可爲永久資給之道, 豐德府許令屬之松都, 其減守令合境界等節, 分付該曹該道舉行, 從之(『純祖實錄』 26권, 1823년(순조 23) 7월 25일 辛卯); 秋七月革豐德府合屬開城府(『國朝寶鑑』 권80, 「純祖朝」 5, 癸未 1823년(순조 23) 7월)
  - 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누리집(<http://kyu.snu.ac.kr/>)에서 제공하는 「송양별곡」 필사본 이미지에는 작품의 제목이 ‘송양별곡’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최강현은 “송양별곡=「송양별곡」의 잘못임”(최강현, 「송양별곡(崧陽別曲)」, 『기행가사자료선집 I』, 국학자료원, 1996, p.550 주1)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작품의 제목을 바로잡았다. 한편, 정순우는 “崧陽은 개성의 古號이다.”(정순우, 「송양서원(崧陽書院)」을 통해서 본 포은 정몽주의 정치사상사적 위상, 『포은학연구』 제24집, 포은학회, 2019, p.8 주1)라고 설명하였다. 이 글은 최강현, 정순우의 견해에 따라 작품의 제목을 ‘송양별곡’이라고 표기함을 미리 밝힌다.
  - 3) 김태웅, 「朝鮮末 開城府財政 補用策의 추이와 朝野의 동향」, 『歷史教育』 제101집, 歷史教育研究會, 2007, p.207.

집 『만언스』에 수록되어 현전한다. 「송양별곡」 필사본 이미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누리집(<http://kyu.snu.ac.kr/>)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sup>4)</sup> 「송양별곡」 필사본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4음보 1행 기준 총 116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양별곡」 필사본의 원문, 주석은 강전섭의 논문 「〈崧陽別曲〉의 作者 摸索」<sup>5)</sup>, 이상보가 엮은 『증보 17세기 가사전집』<sup>6)</sup>, 최강현이 엮은 『기행가 사자료선집 I』<sup>7)</sup>, 한국의 지식콘텐츠 누리집(<http://www.krpia.co.kr/>)에서 제공하는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sup>8)</sup>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강전섭의 논문, 이상보·최강현·임기중의 자료집에 수록된 「송양별곡」 필사본 원문은 판독을 위해 한글·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송양별곡」 필사본 이미지에서 보이는 제83행~제85행인 “편사이증 련고로다 몽믹지심 뉘금헐 고/관풍선화 거류지신 병공출사 쑤니로다/영농단회 칭사당은 도쳐의 버러썬니”가 누락된 채 총 113행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송양별곡」 필사본은 알려져 있지만, 1991년 총 113행의 「송양별곡」을 대상으로 자료 소개와 작자 연구를 병행한 강전섭의 논문<sup>9)</sup> 이후에 「송양별곡」에 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송양별곡」의 작자와 창작 시기가 미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송양별곡」 원본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강

4) 「송양별곡」, 『만언스』, pp.13b-16b,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검색일 : 2020년 7월 1일)

5) 강전섭, 「〈崧陽別曲〉의 作者 摸索」, 『古典文學研究』 제6집, 한국고전문화회, 1991, pp.443-451.

6) 이상보, 「송양별곡」,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pp.244-250.

7) 최강현, 「송양별곡(崧陽別曲)」, 『기행가사자료선집 I』, 국학자료원, 1996, pp.550-556.

8) 임기중, 「송양별곡(崧陽別曲)」,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a.co.kr/>(검색일 : 2020년 7월 1일)

9) 강전섭, 앞의 논문.

전섭의 지적과 같이 필사본 형태로 전하는 “<崧陽別曲>은 訛傳이 甚한 便”<sup>10)</sup>이기 때문이다.

한편, 임기중은 「송양별곡」의 작자와 창작 시기를 미상으로 파악하였고<sup>11)</sup>, 최강현도 「송양별곡」을 지은이 미상작으로 간주하였다.<sup>12)</sup> 그런데 강전섭은 「송양별곡」의 작자를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6~1673)으로 추정하였고<sup>13)</sup>, 「송양별곡」의 창작 시기를 정두경이 송도 회고시를 남긴 1668년경(현종 9)으로 추단하였다.<sup>14)</sup> 강전섭은 이에 관한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두경이 고려 왕조의 옛 도읍인 송도(松都)에 다녀왔고 회고의 애상에 잠겨 한시를 창작한 일, 둘째, 정두경이 우리말 노래에 조예가 깊어 주연에서 시조 2수<sup>15)</sup>를 즉흥적으로 창작한 일, 셋째, 「송양별곡」 제76행의 “군평(君平)이 기세(棄世)헛나 세기군평(世棄君平) 타시로다”에서 보이는 “군평(君平)”을 정두경의 자(字)로 간주하고 정두경이 자신의 자를 활용하여 시조 초장을 “君平이 既棄世 헛니 世亦棄君平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그것이다.<sup>16)</sup> 강전섭의 논의 이후, 이상보는 『증보 17세기 가사전집』에서 「송양별곡」을 17세기 가사 작품으로 분류, 수록하기도 하였다.<sup>17)</sup>

10) 강전섭, 앞의 논문, p.443.

11) 임기중, 「송양별곡(崧陽別曲)」,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www.krpic.co.kr/>(검색일 : 2020년 7월 1일)

12) 최강현, 「송양별곡(崧陽別曲)」, 『기행가사자료선집 I』, 국학자료원, 1996, p.550.

13) 강전섭, 앞의 논문, p.454.

14) 강전섭, 앞의 논문, p.456.

15) 참고로 정두경(鄭斗卿)이 창작한 시조 2수는 “君平이 既棄世 헛니 世亦 棄君平을/ 醉狂은 上之上이오 時事는 更之更이라/다만지 淸風明月은 간 곳마다 좃는다.”(『한국시조대사전』, 박을수 편, 아세아문화사, 1991, p.140)와 “金樽에 ㄹ득흔 술을 슬꺾장 거후르고/醉한 後 긴 노리에 즐거오미 그지업다/어즈버 夕陽이 盡타 마라 들이 조츠 오노미라.”(『한국시조대사전』, 박을수 편, 아세아문화사, 1991, p.164)이다. 이상의 두 작품은 취흥(醉興)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6) 강전섭, 앞의 논문, pp.453-456.

그런데 정두경을 「송양별곡」의 작자로, 1668년경(현종 9)을 「송양별곡」의 창작 시기로 추정한 강전섭의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단서는 「송양별곡」의 시어로 활용된 ‘서사정’(제48행), ‘두문동’(제10행), ‘괴관직’(제11행), ‘부조현’(제11행)에서 찾을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39에 따르면, 서사정(逝斯亭)은 1679년(숙종 5)에 개성유수(開城留守) 윤심(尹深)이 화담(花潭) 위쪽에 건립한 정자이다.<sup>18)</sup> 그런데 정두경은 1673년(현종 14)에 생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서사정은 정두경 사후에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양별곡」 제76행의 “군평이 기세헌가 세기군평 타시로다”에서 “군평(君平)”은 정두경의 자(字)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송양별곡」 제76행의 “군평이 기세헌가 세기군평 타시로다”는 이백(李白, 701~762)의 시 「고풍(古風)」 제13수의 일부인 “군평이 이미 세상을 버리자, 세상 역시 군평을 버렸다네(君平既棄世, 世亦棄君平)”<sup>19)</sup>의 인용이다. 반고(班固, 32~92)의 『한서(漢書)』에 수록된 「왕공양공포전(王貢兩龔鮑傳)」에 따르면, 군평(君平)은 촉(蜀) 엄준(嚴遵)의 자(字)이며, 엄준은 출사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성도(成都)에 은거하면서 복서(卜筮)를 업으로 삼고 살았는데 하루에 100전(錢)만 벌면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제자들에게 『노자(老子)』를 가르쳤다.<sup>20)</sup> 이처럼 엄준은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

17) 이상보, 「송양별곡」,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pp.244~250.

18) 逝斯亭(註: 在花潭上○肅宗己未留守尹深建)(朴容大 외, 『增補文獻備考』 권39, 「輿地考」 27, <開城府>, ‘京畿道’, 外方宮室)

19) 李白, 『全唐詩』 권161, 「古風」,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quantangshi/161/zh#n136390>(검색일: 2020년 7월 1일))

20) 其後谷口有鄭子真, 蜀有嚴君平, 皆修身自保, 非其服弗服, 非其食弗食, 成帝時, 元舅大將軍王鳳以禮聘子真, 子真遂不詘而終, 君平卜筮於成都市, 以爲, 卜筮者賤業, 而可以惠衆人, 有邪惡非正之間, 則依蓍龜爲言利害, 與人子言依於孝, 與人弟言依於順, 與人臣言依於忠, 各因勢導之以善, 從吾言者, 已過半矣. 裁日聞

서지 않는 일민(逸民)<sup>21)</sup>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인 군평은 은일지사(隱逸之士)의 대명사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송양별곡」 제76행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주목하는 구절은 「송양별곡」 제75행의 “林下の 自號四隱 구하느니 무어신고”이다. 제75행의 “自號四隱”은 주지의 사실과 같이 목은(牧隱) 이색(李穡)·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야은(冶隱) 길재(吉再)를 지시한다. 고려·조선 교체기 은거와 절의를 상징하는 이색·정몽주·이승인·길재 등 4인의 호(號)에 공통적으로 ‘隱’ 자가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이 글은 「송양별곡」 제76행의 “군평이 기세현가 세기군평 타시로다”는 「송양별곡」의 작자가 숨을 은[隱] 자에서 일민인 엄준, 곧 군평을 연상한 결과로 파악한다.

‘두문동’, ‘괴관직’, ‘부조현’을 시어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영조(英祖)의 개성 행차와 관련 있다. 영조는 정종(定宗)과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인 후릉(厚陵)에 참배하기 위해 1740년(영조 16)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성에 행차하였다.<sup>22)</sup> 태조대에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역성혁명에 저항한 두문동 72현과 그들의 자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개성인이 과거를 응시하지 못하도록 정거령(停擧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1740년 9월 1일 영조가 주서(注書) 이회원(李會元)으로부터 부조현(不朝峴), 두문동(杜門洞)의 유래담을 듣고 고려 왕조에 대한 두문동 72현의 절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 이래로, 두문동 72현의 자손과 개성인을

數人, 得百錢足自養, 則閉肆下簾而授老子(班固, 『漢書』 권72, 「王貢兩龔鮑傳」,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han-shu/wang-gong-liang-gong-gong-bao-zhuan/zh>(검색일 : 2020년 7월 1일)

21) 自園公, 綺里季, 夏黃公, 甬里先生, 鄭子真, 嚴君平皆未嘗仕, 然其風聲足以激貪厲俗, 近古之逸民也(班固, 『漢書』 권72, 「王貢兩龔鮑傳」,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han-shu/wang-gong-liang-gong-gong-bao-zhuan/zh>(검색일 : 2020년 7월 1일)

22) 『英祖實錄』 52권, 1740년(영조 16) 8월 29일 丁卯.

관리로 등용하였다.<sup>23)</sup> 두문동 72현의 절의 정신은 조선 정부의 충효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덕목이며, 당대에 당론의 분열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분위기에 대해 양정필은 “영조의 개성 행차를 계기로 두문동 고사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때 개성인을 포함하여 누구든 두문동 고사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시대가 온 것이다.”<sup>24)</sup>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송양별곡」에 활용된 ‘두문동’, ‘괴관지’, ‘부조현’은 영조의 개성 행차 이후에 문학적 소재로 공인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송양별곡」의 창작 시기를 1740년 영조의 개성 행차 이후로 소급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사료를 통해 「송양별곡」의 창작 배경을 논구하고, 현실비판가사로서 「송양별곡」이 지닌 문학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송양별곡」의 창작 시기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송양별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논의의 전개를 위해 이 글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총 116행의 「송양별곡」 필사본 이미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23) 上御滿月臺，親試文武，文取全命肇等三人，武取田興齊等十人，放榜時，不用軒架，只用鼓吹，禮畢，上曰，朝家優待北關，以其爲豐沛之鄉也，此亦非豐沛地乎，飭銓曹甄用，試射優等者，邊將除授，是日以王濟道爲訓練主簿，濟道，麗朝後裔也，上憐王氏之衰微，特命付職，又以朴奎晃爲訓練判官，從留守金若魯薦也，是日還宿于行宮(『英祖實錄』 52권, 1740년(영조 16) 9월 2일 庚午)

24) 양정필, 「조선시대 開城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개성인의 정체성」, 『中央史論』 제46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7, p.77.

## II. 「송양별곡(崧陽別曲)」의 창작 배경

「송양별곡」은 1823년 풍덕부·개성부 합병, 1824년 풍덕향교 철폐 및 풍덕향교 복설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다음의 (가)는 『순조실록(純祖實錄)』 1823년 7월 25일 기사이고, (나)는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愔, 1741~1826)가 자신의 처남 신이규(辛履奎, 1758~1829)에게 보낸 편지인 ‘태소에게 답한 편지(答太素書)’ 중 1824년 여름에 쓴 것으로 추정<sup>25)</sup>되는 17번째 편지<sup>26)</sup>의 일부이고, (다)는 1825년(순조 25) 6월 2일 기사에 수록된

25) 尹愔, 『無名子集』, 「無名子集文稿」 14책, <文>, ‘答太素書’, 주001,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76A\\_0200\\_000\\_0270&solrQ=query%E2%80%A0%EC%88%AD%EC%96%91%EB%B3%84%EA%B3%A1\\$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solr\\_solrId%E2%80%A0BD\\_ITKC\\_BT\\_0576A\\_0200\\_000\\_0270](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576A_0200_000_0270&solrQ=query%E2%80%A0%EC%88%AD%EC%96%91%EB%B3%84%EA%B3%A1$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BT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0$solr_solrId%E2%80%A0BD_ITKC_BT_0576A_0200_000_0270)(검색일 : 2020년 11월 1일)

26) 윤기(尹愔)는 ‘정상한화(井上閑話)’ 51개 조목 중 ‘세상에 공론이 없다(世無公言)’ 조목에서 “세상에 공정한 언론이 없어서 비난과 명성, 거짓과 진실이 모두 뒤집히고 어그러졌다. 이른바 ‘시시비비(是是非非)’라는 것이 자신의 애증(愛憎)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바로 권세의 유무를 따를 뿐이다(世無公言, 毀譽虛實, 皆顛錯謬戾, 其所謂是是非非者, 若非徇愛憎, 則乃是因炎涼耳(尹愔, 『無名子集』, 「無名子集文稿」 12책, <文>, ‘井上閑話’ 五十一(註: 下又有十九條).”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기의 진술을 통해 윤기가 편견 없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윤기(尹愔)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해 안대희는 “이는 양반 신분과 남인 당파, 빈곤한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물질적 토대가 빈약한落魄 지식인으로서 윤기는 철저한 비주류 의식을 갖고서 주류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으로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그가 세태를 보는 비평적 기준은 선명하여 전통적 질서와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강한 보수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당연히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신분 질서와 사회질서가 동요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안대희, 「18세기 후반 서울의 都市相과 尹愔의 시선」, 『대동문화연구』 제8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p.62)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태소에게 답한 편지(答



관학 유생(館學儒生) 생원(生員) 오우상(吳羽常) 상소 요약문의 일부이며, (라)는 『순조실록』 1826년(순조 26) 11월 20일 기사에 수록된 호군(護軍) 윤명렬(尹命烈) 상소 요약문의 일부이며, (마)는 『순조실록』 1826년 11월 23일 기사이다.

(가) 영의정(領議政)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저번에 개성유수(開城留守) 김이재(金履載)의 장계로 인하여 경기(京畿) 해안에서 가까운 고을의 전결(田結) 1천 5백 결(結)을 획급하자는 내용으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추후 호조(戶曹)의 초기(草記)에 대한 비답에 묘당과 상의하여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결을 획급하라고 한 것은 일시의 변통에서 나온 조치였는데 책임을 맡은 신하가 관례상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니, 지금 억지로 거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송도의 피폐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달리 변통할 길이 없으니, 오직 고을을 합병하는 방도밖에 없습니다. 풍덕부의 경계는 송도의 5리(里)쯤에 가까이 있고 지경이 들쭉날쭉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찍이 태종조(太宗朝) 13년에 풍덕을 송도에 합병하였다가 뒤에 다시 고을을 설치하였으니, 이제 와서 수령을 혁파하고 개성부에 합속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일이며, 분사(分司)의 경비는 으레 모두 본부에 비축된 군향곡(軍餉穀)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이번에 새로 떼어 줄 고을의 토지는 이미 분사에 소속되어 있으니 그 정세(正稅)는 으레 군향에 보태고 대동미(大同米)도 그대로 비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구히 조달할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니, 풍덕부를 송도에 소속시키고, 수령 혁파, 지역 합병 등의 일은 해당 조(曹)와 해당 도(道)에 분부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

太素書) 중 17번째 편지에 언급된 1824년 풍덕향교 철폐 사건은 유생들의 신분 보장, 나아가 유생들의 존립 및 향촌 사회 체제 유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유자(儒者)의 입장을 견지한 윤기에게 관심사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전술한 윤기의 세태 비평 태도에 의거하여, 윤기가 편견을 배제한 채 풍덕향교 철폐 사건에 관해 사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추고할 수 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27)</sup>

(나) 올해 봄에 남상(南相)(필자 주 : 영의정 남공철)이 개성유수 김이재와 상의한 뒤 주청을 드려서 풍덕부를 혁파하여 송도에 합속하고, 성묘(聖廟)를 허물고 위판(位版)과 전패(殿牌)를 매안(埋安)하였다. 유생(儒生)들이 통문(通文)을 돌려 소청(疏廳)을 설치하자 남상은 통문을 돌린 유생과 소두(疏頭)를 죄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上)께서 이 주청을 따라 모두 엄벌에 처해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명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어떤 사람이 ‘송양별곡(崧陽別曲)’이라는 가사(歌詞)를 짓고 또 변려문(駢儷文)으로 통문을 지었는데, 모두 남상과 김이재를 욕하는 내용이라고 한다.<sup>28)</sup>(밑줄: 필자)

(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생원(生員) 오우상(吳羽常)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상략) 또 백지(白地)에 염극(鹽棘)의 흉악한 말을 지어 내어 언요(諺謠)를 만들어서 원근에 퍼뜨렸으니, 그 계책은 남을 모함하는 데 급해서 스스로 성묘(聖廟)를 모욕하고 더럽히는 죄과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

27) 領議政南公轍啓言, 頃因開城留守金履載狀請, 以畿海傍近邑田結一千五百結劃給之意, 覆啓蒙允, 迨因戶曹草記批旨, 有與廟堂商處之命矣, 當初劃結, 固出於權宜之舉, 而有司之臣, 以例執難, 今不必强令舉行, 第念松都破敗至此, 亦無從他變通, 則惟有劃邑合屬一條, 而豐德府界, 近在松都五里之許, 壤土相錯, 故曾在太宗朝十三年, 以豐德合屬於松都, 後復設邑, 則到今罷守而竝府, 事有可據, 分司經用, 例皆取用於本府餉穀儲置中, 今此新劃邑土地, 既屬於分司, 則其正稅, 自當依例添納, 大同亦爲仍留儲置, 如是則可爲永久資給之道, 豐德府許令屬之松都, 其減守令合境界等節, 分付該曹該道舉行, 從之(『純祖實錄』 26권, 1823년(순조 23) 7월 25일 辛卯)

28) 今春, 南相與松留金履載相議奏革罷豐德, 合於松都, 毀聖廟, 埋安位版及殿牌, 儒生輩發通文設疏廳, 南相請罪發通人及疏頭, 上從之, 命並嚴刑遠配, 近聞有人作歌詞, 名曰崧陽別曲, 又以儷文作通文, 皆辱罵南金云(尹愔, 『無名子集』, 『無名子集文稿』 14책, 「文」, <答太素書>)

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에 참여한 여러 유생이 사실에 의거해서 명백하게 분변한 것으로 인해 태학(太學)에 통문을 보내왔고 이에 조사해 다스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말을 꾸미고 노래를 지은 이철희(李徹熙)와 유현(柳絢) 두 죄수가 그 죄를 자복하였는데, 유배형에 그친 것은 또한 관대한 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악하여 그칠 줄을 모르고 다시 얼굴만 바꾸어서 이에 호우(湖右)의 신강(申綱)이 소란을 피워 상소할 밀 천이라고 일컫고 집마다 돈을 거두어 온 도내가 소란하였으며, 그들이 성묘를 빙자해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계책을 삼았으니, 더욱 통악스럽습니다. (하략)”<sup>29)</sup>

(라) 호군(護軍) 윤명렬(尹命烈)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포도청(捕盜廳)의 죄수 한경악(韓慶岳)의 일이 그 이상 더 근심스럽고 의심스러운 데가 없습니다. 송도와 풍덕이 합병된 이후로부터 기호(畿湖) 사이의 패려한 사유(士儒)들이 근거 없는 일을 속이고 선동하여, 심지어는 신강(申綱) 무리의 패려한 거조가 있었는가 하면, 김치규(金致奎)·이창곤(李昌坤)의 변고와 박형서(朴亨瑞)·정상채(鄭尙采)의 옥사가 서로 잇달아 일어나서 단서와 맥락이 접하여 연결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일종의 뜻을 잃은 불령한 무리가 있어 국가를 원망하고, 은밀히 반역의 마음[不軌之心]을 쌓아 잠복하여 틈을 엿보다가 이에 고을을 개혁하고 향교를 혁파하는 것으로 기화(奇禍)를 삼아 소요와 의혹을 터무니없이 퍼뜨려서 장차 모든 유생들을 함정에 끌어들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을 도모하였으니, 그 또한 흉참합니다. 신은 듣건대, 이번 이규여(李奎汝)의 구문(究問)에서 이른바 ‘오촌(鰲村)에 주었다는 글’의 한 안건에 있어서는,

29) 館學儒生員吳羽常等疏略曰, (상략) 又於白地做出鹽棘之凶, 誣作爲謠謠, 播之遠近, 其計急於誣人, 而不知自陷於誣讎聖廟之科, 良可哀哉, 乃因其時參事諸儒之據實下明, 馳通太學, 而仍有查治之命, 造言作謠之李徹熙·柳絢兩囚, 自服其罪, 止於刑配, 亦是寬大之典, 而頑不知戢, 又復換面, 乃有湖右申綱輩之起鬧, 而稱以疏資, 逐戶歛錢, 全道騷擾, 其藉賣聖廟, 圖爲己利之計, 尤可痛惡, (하략) 『純祖實錄』 27권, 1825년(순조 25) 6월 2일 戊午)

곧 유현(儒賢)에게 권하여 풍덕 고을을 혁파한 잘못을 논하게 하였는데, 말이 몹시 위험하고 패악스러웠으니 그 글을 지은 자는 곧 한경악입니다. 한경악의 초사에 이르기를, “풍덕에 관한 일로써 3편(篇)의 가사가 있는데 기록하지 않은 집이 없고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분노에서 발로 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이른바 ‘3편의 가사’라는 것은 곧 터무니 없는 말을 지어내어 선동한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이 가사를 만든 자는 곧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선동한 근본 와굴(窩窟)입니다. …… (중략) …… 한경악이 스스로 가사를 제공한 것 또한 신강 무리의 패악한 거조와 맥락이 상통하고, 김치규·이창곤·박형서·정상채가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것에 대한 성세와 도움이 된 것은 밝기가 지문과 같았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한경악을 잡아들여 시말을 추문하고 그 와주(窩主)를 찾아서 분명히 전형을 바꾸게 하소서.”<sup>30)</sup>

(마) 하교하기를,

“포도청의 문안(文案)을 가져다 보니, 이른바 ‘3편의 가사’는 애초에 포도청에서 물은 것이 아닌데 한경악이 이로써 대답을 하였으니, 그 가사가 인심을 선동하고 유혹시키는 근본이 된 것은 진실로 재신(宰臣)이 말한 것과 같았다. 마땅히 엄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한경악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그것을 지은 자는 별도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

30) 護軍尹命烈疏略曰, 臣於捕廳因韓慶岳事, 有不勝憂疑者, 自松`豐合并之後, 畿湖間悖儒, 白地誑煽, 甚至有申綱輩悖舉, 而奎`坤之變, 亨采之獄, 相繼而起, 端緒脈絡, 莫不接連, 其必有一種失志不逞之徒, 讎懟國家, 陰蓄不軌之心, 潛伏而求釁, 乃以革邑罷校, 認爲奇貨, 譸張搖惑, 將以構陷搢紳, 圖危國家, 其亦凶慳矣, 臣聞今番李奎汝之究問也, 有所謂與鰲村書一案, 卽勸儒賢論豐德罷邑之失, 而辭極危悖, 其作書者, 卽韓慶岳也, 慶岳之招曰, 以豐德事, 有三篇歌詞, 無家不錄, 無人不誦, 發憤爲之云, 夫所謂三篇歌詞者, 卽譸張煽動之樞柄, 爲此歌詞者, 卽譸張煽動之根窩也, …… (중략) …… 慶岳之自供歌詞, 又與申綱輩悖舉, 脈絡相通, 而爲奎`坤`亨采陰謀不軌之聲勢羽翼者, 瞭如指紋, 伏願亟令王府, 拿致韓慶岳, 推問始末, 得其窩主, 明正典刑(『純祖實錄』 28권, 1826년(순조 26) 11월 20일 丁酉)

을 것이다. 대신이 부주(附奏)한 내용에 “문안을 만약 과인이 보면 알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반드시 이를 이른 것이다. 이것을 지은 자를 이미 알지 못한다면, 한경악에게 추문하여도 또한 한갓 번거롭고 유익함이 없을 뿐이니, 이러한 뜻을 대신과 재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게 하라.”

하였다.<sup>31)</sup>

위의 (가)~(마)는 공통적으로 1823년 7월 25일에 시행된 풍덕부·개성부 합병에 관한 기록이고, 그중 (나)~(마)는 풍덕향교 철폐,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비판한 ‘3편의 가사(三篇歌詞)’ 및 해당 작품의 작자에 관한 기록이다. 풍덕부·개성부 합병은 근본적으로 개성부의 자연지리적·정치적·경제적·군사적 여건과 관련 있다. 개성의 경작지는 임진강(臨津江)에 합류하는 사천(沙川) 유역에 발달하였지만 그 면적이 크지 않고<sup>32)</sup> 도시의 발달로 경작지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까닭에, 개성에는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 개성부는 수도 한양(漢陽)을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이자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관아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개성부는 전세(田稅) 등 각종 부세를 중앙에 상납하지 않았고, 그 대신 군수(軍需)·칙수(勅需)를 중앙에 조달하였으며, 개성상인에게 거두어들인 세금과 금전대부를 통한 이자 수입으로써 자체 재원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이래로 개성부는 군수, 칙수 및 개시(開市)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sup>33)</sup> 중 하나가 바로

31) 敎曰, 捕廳文案取見, 則所謂三篇歌詞, 初非捕廳之發問, 而韓慶岳, 以此爲對, 則其歌詞之爲煽惑人心之本, 誠如宰臣之言, 而當嚴覈, 然慶岳不曰自作, 則作之者必別有其人, 大臣附奏中文案, 若經乙覽, 則可知者, 必謂此也, 作之者既不可知, 則問於慶岳, 亦徒煩無益而已, 此意令大臣宰臣, 知悉(『純祖實錄』 28권, 1826년(순조 26) 11월 24일 辛丑)

32) 박종진,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웠던 조세」, 『고려의 황도 개경』, 한국역사연구회, 2009, p.192.

1823년 풍덕부·개성부 합병이었다. 위의 (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개성유수 김이재(金履載)는 개성부 예산 중 부족한 1천 5백 결을 “이번에 새로 떼어 줄 고을”, 곧 풍덕부를 통해 보용하고자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주청하였고, 조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풍덕부·개성부 합병이 시행되자, 구 풍덕(舊 豐德) 유생들은 경기감영(京畿監營)에 풍덕부를 개성부에 합속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조선 정부에 장계를 보낼 것을 청하였고, 주사(籌司), 곧 비변사(備邊司)에 풍덕부·개성부 합병이 적절하지 못함을 10가지로 들어 연일 호소하였지만, 경기 감영과 비변사는 구 풍덕 유생들의 청을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sup>34)</sup> 그 이후 1824년 2월 풍덕향교(豐德鄕校)가 철폐되었다. 향교의 철폐는 향촌 유생들에게 향촌 사회에서의 신분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구가 사라지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구 풍덕 유생들과 기호 지방 유생들은 풍덕향교 복설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풍덕부·개성부 합병, 풍덕향교의 철폐 및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주도한 남공철, 김이재를 비판하며<sup>35)</sup> 통문(通文)을 돌렸다. (나)에 언술된 “올해”, 곧 1824년부터 조선 정부는 풍덕향교 복설운동에 참여한 유생들을 유배 보내거나 엄벌에 처하였다.<sup>36)</sup> 곧 풍덕

33) 17세기 이래로 개성부의 재정난을 수습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정책은 김태웅, 『朝鮮後期 開城府 財政의 危機와 行政區域 改編』, 『韓國史論』 제41·42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9, pp.659-675 참조.

34) 純祖二十四年, 豐德合屬後, 豐德儒生輩, 以合屬爲不便, 呈於畿營請狀聞勿罷邑, 又呈於籌司, 以合屬不便事, 構成十條, 連日屢籲, 而並不得請, 則遂倡說, 以爲罷邑(『松京廣攷』 권1, 「國朝紀事」)

35) 풍덕부·개성부 합병으로 풍덕부가 혁파되자 남공철은 정치적·행정적·사회적 부담을 느끼고 1823년 8월 18일에 사직을 청하였지만, 순조(純祖)는 이를 반려하였다(『純祖實錄』 26권, 1823년(순조 23) 8월 18일 甲寅). 한편, 김이재는 풍덕향교 철폐에 대한 비난이 일자 1824년 4월 9일 체직을 청하였는데, 순조는 이를 반려하였고 1824년 4월 15일에 김이재의 체직을 허락하였다(『純祖實錄』 27권, 1824년(순조 24) 4월 9일 壬寅; 『純祖實錄』 27권, 1824년(순조 24) 4월 15일 戊申).

향교 복설운동은 조선 정부에 반(反)하는 정치적·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풍덕부·개성부 합병, 풍덕향교의 철폐를 비판하는 이른바 ‘3편의 가사’도 (라)와 같이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선동한 이야깃거리”로 인식하였다.

이 글은 (나)를 통해 ‘3편의 가사’ 중 1편이 「송양별곡」인 것으로 추정한다. 1825년 6월 2일에 이철희(李徹熙)와 유현(柳絢)이 ‘노래’를 지었다고 자백하였는데, 조선 정부는 이들에게 유배형을 선고하였다[다]. 여기에서 ‘노래’는 당대의 정황상 ‘3편의 가사’이다. 한편, 1826년 11월 20일에 조선 정부는 ‘3편의 가사’ 작자로 충청도(忠淸道) 연기(燕岐) 출신 유생인 한경악(韓慶岳)을 지목하였는데, 한경악은 자신이 ‘3편의 가사’를 짓지 않았음을 밝혔대[마]. 결국 조선 정부는 1826년 11월 24일에 조선 정부는 ‘3편의 가사’ 작자가 한경악이 아니라면, 별도의 인물이 있을 것으로 여겼

36) 1824년 4월 4일에 순조는 풍덕향교 철폐 이후 구 풍덕(舊 豐德) 유생 중 사사로이 제사를 지낸 자들을 엄벌할 것을 하고하면서 “주읍(州邑)을 혁파하고 합치는 것은 항상 있는 행정이고, 고을이 없어지면 사단과 향교를 없애는 것도 역시 예로부터 당연한 이치인데, 이 무리들이 이처럼 날뛰니 참으로 변괴 가운데서도 큰 것이다. 진실로 성현(聖賢)을 사모하고 현송(絃誦)을 익힐 마음이 있다면, 송경(松京)의 학궁 역시 풍덕의 학궁이다. 이는 고사하고 조가(朝家)에서 처분한 후에 감히 거를 마음이 생겨 이처럼 패란한 일이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이른바 ‘국가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眼無國家).’는 것이니, 이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무슨 변란인들 없겠는가? 흉무(凶誣)를 거짓으로 주장한 자 및 사사로이 제사를 지낸 무리는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니, 바로 난민(亂民)들이다(州邑革合, 卽恒有之政, 無邑則無社無校, 亦自古當然之理, 此輩之若是跳踉, 誠亦變怪之大者, 苟有慕聖賢習絃誦之心, 松京之學宮, 亦豐德之學宮也, 此則姑舍, 朝家處分之後, 敢生角勝之心, 有此悖亂之事者, 眞所謂眼無國家, 若此不已, 何變不有, 譴張凶誣及私自行祭之類, 均犯罔赦, 直是亂民(『純祖實錄』 27권, 1824년(순조 24) 4월 4일 丁酉).”라고 하였다. 한편, 풍덕향교 복설운동에 참여한 유생에 대한 처벌은 『純祖實錄』 27권, 1824년(순조 24) 4월 4일 丁酉; 『純祖實錄』 27권, 1825년(순조 25) 4월 19일 丙子; 『純祖實錄』 27권, 1825년(순조 25) 4월 26일 癸未; 『純祖實錄』 27권, 1825년(순조 25) 6월 2일 戊午 참조.

대(마)].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면, 조선 정부는 1825년, 1826년에 ‘3편의 가사’ 작자를 색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832년(순조 32)에 임효헌(林孝憲)이 편찬한 『송경광고(松京廣攷)』에 1824년 풍덕향교 위판을 매안할 때의 불경한 일을 소재로 한 익명의 언요(諺謠)를 지어 원근에 유포하였다<sup>37)</sup>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 정부가 ‘3편의 가사’를 만든 자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선동한 근본 와굴(窩窟)” 또는 “와주(窩主)”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라)], ‘3편의 가사’ 작자는 정치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송양별곡」이 남궁철과 김이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나)], ‘3편의 가사’ 작자의 범위는 넓게는 ‘3편의 가사’의 유통자인 유생 한경악(라)과 같은 사유(士儒)로 추고할 수 있고, 좁게는 풍덕부·개성부 합병, 풍덕향교의 철폐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풍덕향교 복설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유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태소에게 답한 편지’가 1824년 여름에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 ‘태소에게 답한 편지’에 담긴 구 풍덕의 풍덕향교 철폐에 관한 내용, 밑줄 친 대목과 같이 「송양별곡」의 제목 및 개략적 내용이 언급된 것을 통해 「송양별곡」의 창작 시기를 구체적으로 1824년 2월 풍덕향교 철폐 전후와 그해 여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미상의 「송양별곡」 작자는 작품의 제목에 사건의 중심지인 ‘개성(開城)’의 당대의 지명을 직접 거론하지

37) 純祖二十四年 豐德合屬後, 豐德儒生輩, 以合屬爲不便, 呈於畿營請狀聞勿罷邑, 又呈於籌司, 以合屬不便事, 構成十條, 連日屢籲, 而並不得請, 則遂倡說, 以爲罷邑, 而埋校宮位版, 前此無例, 作爲通文, 傳于畿湖, 又倡誣說, 以爲埋安時有塩棘不敬之事, 作爲匿名諺謠, 流布遠近, 欲以此眩惑羣聽, 鼓動士論, 收合錢財, 私設䟽廳, 以請復聖廟爲號, 欲藉此而爲復邑之階, 自泮中學此狀報于籌司(『松京廣攷』 권1, 「國朝紀事」)



않고 개성의 옛 지명인 ‘송양(崧陽)’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송양별곡」의 작자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송양별곡」은 1823년 풍덕부·개성부 합병, 1824년 풍덕향교의 철폐,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주도한 영의정 남공철 및 개성유수 김이재를 비판한 19세기 작가 미상의 현실비판가사라고 할 수 있다.

### Ⅲ. 「송양별곡(崧陽別曲)」의 작품 성격

이 글의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양별곡」의 작자는 조선 정부에서 시행한 풍덕부·개성부 합병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이에 「송양별곡」의 작자는 「송양별곡」의 향유층 앞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의 의도를 텍스트에 숨기고 있다. 곧 「송양별곡」은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난 언어를 통해 텍스트 심층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송양별곡」의 작품 성격을 논구하기 위해 「송양별곡」의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를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송양별곡(崧陽別曲)」의 표면적 의미

이 글의 Ⅲ.1절에서는 「송양별곡」의 표면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텍스트 표층을 중심으로 「송양별곡」의 서술 단락과 화자의 여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송양별곡」 표면상의 서술 단락과 화자의 여정

| 서술 단락 |         |                                                       | 화자의 여정                                   |
|-------|---------|-------------------------------------------------------|------------------------------------------|
| 구분    | 행 번호    | 내용                                                    |                                          |
| 제1단   | 1~12    |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허망함                                     | · 시간 : 석양 무렵<br>· 공간 : 만월대               |
| 제2단   | 13~23   |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대한 정당성                                     |                                          |
| 제3단   | 24~63   | 수도 한양과 다른 개성의 풍속                                      |                                          |
| 제4단   | 64~111  | 개성 성균관 <sup>38)</sup> 유생, 자하동·채하동 선비에게 입신양명을 위해 학문 권장 | · 시간 : 저녁<br>· 공간 : 남문루                  |
| 제5단   | 112~116 | 명신·석보 자손의 대성에 대한 의문 및 잔과의 찬 북소리 <sup>39)</sup> 에 각침   | · 시간 : 이튿날 새벽 4시<br>· 공간 : 남문루 100여 리 이내 |

위의 <표>와 같이, 「송양별곡」은 표면상 크게 5개 서술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단락 중 제1단은 서사에, 제2단~제4단은 본사에, 제5단은 결사에 해당한다. 서사인 제1단부터 작품의 원문을 제시하고,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8) 「송양별곡」 제71행의 “신피고형 석권단”, 곧 젊은 느티나무와 늙은 은행나무가 섞인 단은 개성 성균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성균관 마당에는 있는 은행나무 2그루와 느티나무는 각각 북한 천연기념물 제386호, 제387호로 지정되어 있고, 북한 천연기념물 제387호인 느티나무 주변에는 씩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들이 있다고 소개한다(『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성균관느티나무&ridx=0&tot=418>, 2020.8.17.);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성균관은행나무&ridx=0&tot=1549>, 2020.8.17.).

39) 「송양별곡」 제115행의 “잔과의 찬북소리”는 연복사(演福寺) 범종 소리로 추정된다. 연복사 범종은 1563년(명종 18)에 개성 연복사(演福寺)의 화재로 인해 남문루(南門樓)에 옮겨 걸었다. 문광선은 “조선시대에는 새벽 4시와 밤 10시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종을 쳐서 알렸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매우 맑아 100여 리까지 퍼졌다고 한다.”(문광선, 「우리나라 5대 종의 하나인 연복사종演福寺鍾」, 『세계문화유산 개성』, 역사인, 2016, p.36)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이 글은 결사 부분의 공간을 연복사 범종이 걸린 남문루의 100여 리 이내로, 시간을 연복사 범종이 울린 새벽 4시로 추단한다.

석양의 나귀모라 만월디 촛즈가니/홍망이 텃수여니 섬겨운 꿈이로다/방  
화 고초의 만초만 얼거졌고/오인 쌍표은 주야로 울어논디/오백년 왕업을  
눌더러 무려볼고/공산의 우논즈규 옛인군의 혼신가/선죽교 뿌리피은 천만  
년 진나간들/추상 열일의 변혈줄이 이슬손가/길쭉서 가는길의 누구누구 싸  
르시고/두문동 모든스람 성명조츠 인멸호고/괴관지 부조현은 촌낙이 처량  
하다/홍엽이 훗날일제 목적은 무슴일고

「송양별곡」은 화자가 나귀를 타고 고려 왕조의 옛 궁궐터인 만월대(滿月臺)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화자는 홍망은 하늘에 달려 있으므로, 퇴락한 만월대를 보고 고려 왕조의 홍망을 싱거운 꿈에 비유한다. 또한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포은 정몽주의 충의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문하주서(門下注書)를 역임한 야은 길재를 따라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저항한 두문동 72현은 성명(姓名)조차 남지 않았고, 괴관현[괴관지]·부조현은 처량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제1단은 만월대·두문동·괴관현·부조현 등 개성의 고적, 두문동 고사를 통해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허망함을 기술한다. 다음은 「송양별곡」의 제2단이다.

낙읍의 완민들아 탕무를 엮다말아/천운이 순환하니 인력으로 비일손가/  
표묘훈 삼각산이 규봉이 되엿시니/도선의 신안인들 운무를 뽀볼손가/즈글  
지 밋지말아 철니외을 어이보며/장명등 허지말아 반천년을 비출손가/목청  
전 격구장은 청희벽이 촛즈가고/경덕궁 조끼지는 무학이 아라렌지/노룡의  
농주형의 세간났다 티동티왕/종허 이정이 낙수를 건너가니/삼십삼왕<sup>40)</sup> 호  
괴업이 관리영문 되거고나

화자는 낙읍(洛邑)의 완민, 곧 고려 유민들을 호명한 이후, 탕왕(湯王)·

40) 고려의 임금인 태조(太祖)부터 공양왕(恭讓王)까지 총 34명이다. 따라서 「송양별곡」 제23행의 “삼십삼왕”은 “삼십사왕”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무왕(武王)의 역성혁명과 같이 이성계의 역성혁명도 인력으로 거스를 수 없는 천운(天運)이라고 한다. 풍수지리적으로 삼각봉(三角峯)을 규봉(窺峰)으로 하는 한양(漢陽)은 조선의 수도로서 적합하였고, 이성계에게는 조력자로서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있었으며, 후계자로서 5남인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 있었다. 또한 1388년(우왕 14) 요동(遼東) 정벌을 위해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의 자격으로 출정한 이성계는 압록강(鴨綠江) 하류[낙수]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한 이후, 고려의 역대 임금들이 이룩한 기업(基業)을 기반으로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처럼 제2단은 천운이 순환하는 때에 풍수지리, 조력자, 후계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운명적으로 잘 맞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음을 말한다. 다음은 「송양별곡」의 제3단이다.

정니허는 저풍속이 예부터 이러헿가/승국의 깃친빅성 시교화를 못밧든  
가/음식의복 제도들도 한양과 다르시고/즈라망티 슈결은 유안성의 발명이  
요/삭갓밧히 큰창웃슨 낭반즈랑 가련헿스/노쇼길흥 다더지고 흰비츨 흥상  
키는/망국티위 향군지심 종신니상 마암이라/부녀의 쓸치마은 존비을 어이  
알며/약남약녀 귀엿골은 옛규모 어디간고/원월원일 돌싸음은 기무엇슬 상  
토던고/녹음방초 고상님의 천중가절 도라오니/유풍인가 선속인가 유가스  
녀 하도홀스/호결남즈 각지희은 용정우희 판을즈바/연환보 잉무각의 허영  
일영 모도밧기/라체흥장 모든가인 구궁녀의 유희로다/망국한은 전혀업고  
닷토논니 반선회<sup>41)</sup>라/으호무당 팔독춤은 말근목 고은소리/호귀신 저리훈

41) 「송양별곡」을 소개한 강전섭은 주석을 통해 「송양별곡」 제39행의 “반선회”에 대해 “頒扇戲는 임금이 臣下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던 일을 遊戲로 만들었을 것임.”(강전섭, 앞의 논문, p.446 주<sup>⑬</sup>)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송양별곡」 제34행은 천중가절(天中佳節), 곧 단오(端午)를 명시하고, 제36행은 용정(龍井)에서 남성들이 즐긴 각저희(角抵戲), 곧 씨름놀이를 묘사한다. 제37행~제39행은 고려 옛 궁녀들의 유희인 그네놀이를 형상화하는데, 멀리 뛰기 위해 ‘연환보’, ‘잉무각’을 목표물

들 망국쫓츠 회북하야/덕물산성 최영장군 지산지세 무엇시고/서풍잔조 빈  
 능궐의 여곽쫓츠 켜여가니/동동오종 총스월의 늦기느니 고힘일다/지척늑  
 진 윤시낭과 박연편종 니령간이/후세의 잇다흔들 고국강산 저리되며/목은  
 웅의 도학문장 이으니 쏘잇는가/화담 말근물결 서사정을 돌너시니/쥬인은  
 괴뉘시고 청풍만 고금일다/디홍폭 너러바회 고적을 차즈리라/박성의 옥적  
 성의 용낭 감동커다/비류직흐 삼천척은 청년의 절창이요/은구이 삭심사자  
 는 황진의 묘필이라/산고수려 나문괴운 진의후이 아니런가/양경간치 남자  
 들은 망석화상 되오리라/불법이 잇고엿기 산천운괴 아니런가/신돈의 곤서  
 호늑 왕씨의 녹도부라/디성의 쥬인임군 석가들 구쥬손가/일낙비락 흐는고  
 저 상너쥬거 복쥬하고/서관북경 통훈길의 별성사지 열락하니/풍속이 돈후  
 하고 인심이 순박던가/십세못된 삼척동자 비호느니 고힘이요/팔노형상 오  
 식군인 힘쓰느니 청축일다

화자는 개성인이 상업도시인 개성에서 이익을 다투는 것을 목격한 이후,  
 전 왕궐(승궐)에 사는 백성, 곧 고려 유민들이 조선 왕조의 유교적 교화를  
 거부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화자는 개성인의 음식·의복·제도  
 가 수도 한양과 다름을 언급하고, 그중 개성인의 의복(가사·장옷·흰옷·쓰개  
 치마·귀걸이 등)·제도(수궐·석전·각저화·반선화·무속신앙·사신 접대 등)를  
 중심으로 예시를 제시한다. 또한 화자는 이와는 별개로 박연폭포(朴淵瀑  
 布)·서경덕(徐敬德)·황진이(黃眞伊) 등 송도삼절(松都三絶)을 언급하기도  
 한다. 곧 화자는 개성인의 의복·제도를 질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 송도삼절을 추가하여 개성의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화자는 공민왕(恭愍王)을 대신하여 개혁정치를 단행한 승려 출신

---

로 정해 놓고 그네를 타는 사람이 보일 듯 말 듯한 모습(제37행), 그리고 경쟁하듯  
 그네를 타는 모습(제39행)을 묘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선화”는 그네놀이의 이  
 칭(異稱)인 ‘半仙戲’라고 할 수 있다.

신돈(辛旽)의 일화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공민왕의 충애를 받던 신돈이 권력이 커지자, 곤룡포의 호랑이를 ‘사슴’이라고 말함으로써[곤서 호늑] 공민왕을 능멸하여 숙청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일화를 두고 화자는 “디성의 주인임군 석가들 구혈손가”라고 진술함으로써, 유교를 국시로 표방한 조선과 달리 불교를 국시로 표방한 고려의 역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음은 「송양별곡」의 제4단이다.

전조정 남은변화 풍요을 보려호고/서로를 못쳐마라 남문누 올라가니/구리가 십자파는 인물도 예료혈사/인연은 조밀혈사 사람좃차 미미로다/식함이 흐는중의 충신진들 업슬손가/항상가숙 곳곳마다 현송을 드러보소/옛나라 유풍인가 당금 작흥인가/신괴고형 석권단의 제제청금 우위보소/……(중략) ……/자하치하 연화중의 글닉는 선비들은/장의식장 준적인가 도헌부헌 희망인가/디장부 되어나서 지기좃차 연멸혈가/척확지굴 이구신 회성의 스성이요/장괴의신 디시용은 공부자의 유훈이니/직설이 몸이되여 요순을 못기워도/금수 월노의 종상이야 사양혈가/시부표칙 공부호고 명지정초 글시익겨/거벽사수 구치말고 진사급제 힘을쓰소/교관교수 망통중의 문학지화 빠질손가/산천정괴 이진호니 영웅이 업써든지/엇지타 디관청함 취적교을 못넘는고/하날이 사람닐제 누을아니 쓰게호며/나라히 사람쓸제 귀천이 업건마는/입신양명 일조로다 이곳의은 다르도다

화자는 개성에 남아 있는 고려의 변화와 풍요를 보기 위해 개성 시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문루(南門樓)에 올라간다. 인가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인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화자는 개성에서 선비를 찾는다. 그리하여 화자는 개성 성군관 유생들, 자하동(紫霞洞)·채하동(彩霞洞)에서 독서하는 선비들에게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사마시(司馬試)에서 진사(進士)에 급제하는 데 1차 목표를 두

고 과거를 준비할 것, 부정행위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 개성인은 정거령으로 인해 과거 응시, 급제자 선발 및 관직 승진에서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거령은 1392년(태조 1)에 시행되어 1470년(성종 원년)에 철폐되었지만<sup>42)</sup>, 정거령으로 인해 취적교(吹笛橋) 이북 출신자인 개성인은 대관(臺官), 청환(淸宦)에 제수되지 못하였다.<sup>43)</sup> 여기에서 대관은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정3품) 이하 집의(執義, 종3품)·장령(掌令, 정4품)·지평(持平, 종5품)까지의 벼슬이고, 청환은 지위와 봉록은 높지 않지만 훗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규장각(奎章閣)·홍문관(弘文館)의 벼슬이다. 화자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성

42) 太祖三年甲戌，都邑漢陽○車駕至臨津，又設科前朝世族，無一人赴舉(註：壬戌設科蓋欲悅人心而無赴舉者故之此更設而亦不赴)，遂命一都停舉禁錮(『輿地圖書』，「松都(補遺)」 권1, <國朝紀事>); 成宗元年庚寅 成化八年，特命解停舉(註：自太祖壬申至此七十九年)(『輿地圖書』，「松都(補遺)」 권1, <國朝紀事>).

43) 양정필은 『송도지(松都志)』, 『중경지(中京志)』, 『송경지(松京志)』, 『개성지(開城志)』 등을 대상으로 조선 시대 개성인 중 문과 급제자를 조사 정리한 바 있다. 그리하여 양정필은 1차로 도출된 135명 중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개성지』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조선 시대에 편찬된 『중경지』에 수록되지 않은 최립(崔翌), 한익(韓翊), 차전곤(車轉坤), 석지형(石之珩), 김병연(金秉淵) 등 5명을 제외한 다음, 개성인 문과 급제자를 최종 선별하였다(양정필, 앞의 논문, p.60 주12 참조). 양정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최종 선별된 개성인 문과 급제자수는 130명이다. 한편, 양정필이 1차로 도출한 개성인 문과 급제자는 양정필, 앞의 논문, pp.56-60 <표 1> 조선시대 개성인 과거 합격자 관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거령 철폐 이후, 1515년(중종 10) 개성인 최초 문과 급제자인 최세진(崔世津)부터 1892년(고종 29) 개성인 최종 문과 급제자인 박도상(朴道常)까지 377년 동안 문과에 급제한 개성인수는 총 130명이다. 이로써 연평균 개성인 문과 급제자수는 0.352명이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총 14,620명 중 개성인 문과 급제자의 비율은 약 0.89%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에는 개성인 문과 급제자로 최세진 등 101명, 개성인 무과 급제자로 김한우(金漢佑) 등 1,395명이 등재되어 있는데(『輿地圖書』, 「松都(補遺)」 권6, <文科>; 『輿地圖書』, 「松都(補遺)」 권6, <武科>), 이를 통해 개성인 무과 급제자수가 개성인 문과 급제자수의 약 13.8배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신자가 타 지역 출신자와 달리 입신양명을 하루아침에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한다. 다음은 「송양별곡」의 제5단이다.

옛날의 명신석보 오날날 그자손이/일비일티 이러허니 나도모른 일리로  
다/옛사람 만나보고 몽중의 못짓더니/잔곡의 찬복소리 풋잠을 놀라씨니/송  
악의 시벽빚치 정연호월 분이로다.

화자는 명신, 석보의 자손들이 오늘날에 대성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어 꿈속에서 옛사람에게 묻고자 한다. 그런데 화자는 새벽에 잔곡의 찬복소리에 놀라 풋잠을 깨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송양별곡」 표층의 내용을 종합하면, 「송양별곡」은 작자가 개성의 고적을 여행한 체험, 개성의 풍속을 관찰한 체험 및 그로부터 발로된 감회를 재현한 기행가사이며, 동시에 개성 외부인의 시선으로 개성인에게 정치적·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학문을 권장한 권학가사로 보여진다.

## 2. 「송양별곡(崧陽別曲)」의 심층적 의미

이 글의 Ⅲ.2절에서는 앞서 인용한 윤기의 ‘태소에게 답한 편지’에서 밑줄 친 “어떤 사람이 ‘송양별곡(崧陽別曲)’이라는 가사를 짓고 또 변려문으로 통문을 지었는데, 모두 남상과 김이재를 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sup>44)</sup>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송양별곡」의 심층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한

44) 今春, 南相與松留金履載相議奏革罷豐德, 合於松都, 毀聖廟, 埋安位版及殿牌, 儒生輩發通文設疏廳, 南相請罪發通人及疏頭, 上從之, 命並嚴刑遠配, 近聞有人作歌詞, 名曰崧陽別曲, 又以儷文作通文, 皆辱罵南金云(尹愔, 『無名子集』, 「無名子集文稿」 14책, 「文」, <答太素書>)



편, 다음의 (가)~(바)는 「송양별곡」에서 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숨긴 대목이다. 다음의 (가)는 「송양별곡」 제3단의 일부이다.

(가) 음식의복 제도들도 한양과 다르시고/…… (중략) ……/삭갓밧히 큰  
창옷은 낭반즈랑 가련힐스/…… (중략) ……/악남악녀 귀엣골은 옛규모 어  
더간고

위의 (가)는 개성인의 의복 중 가새[삭갓], 귀걸이[귀엣골]에 관한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그중 가새는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너울인데, 개성 양반가 여성들은 너울을 쓰고 외출하였다.<sup>45)</sup> 유교 문화의 발달로 1572년(선조 5) 9월 28일에 귀걸이 착용을 왕명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지만<sup>46)</sup>, 그 이전에는 귀걸이의 크기[규모]가 클수록 신분과 권위가 높았다.

그런데 풍덕향교 철폐를 야기한 풍덕부·개성부 합병의 근본 원인이 개성부의 예산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가새·귀걸이 등 장신구의 화려함이 대변하는 개성인의 사치와 개성부의 예산 부족은 양립하기 어렵다. 이처럼 위의 (가)를 통해 작자는 개성부의 예산 형편과 거리가 먼 개성인의 사치에 대해 비판한다. 다음의 (나)는 「송양별곡」 제3단의 일부이다.

(나) 셔관복경 통훈길의 별성사지 열락하니/풍속이 돈후하고 인심이 순  
박던가

45) 서성호, 「개경의 시장」, 『고려의 황도 개경』, 한국역사연구회, 2009, p.185.

46) 備忘記傳于政院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我國大小男兒, 必貫穿其耳, 作環珥而懸之, 取譏於中國, 亦可羞愧, 自今後, 一切痛革胡習, 曉諭中外, 京中則限今月, 其或憚不卽從者, 憲府嚴加懲罪, 以此捧承傳可也(『宣祖實錄』 6권, 1572년(선조 5) 9월 28일 辛亥)

위의 (나)는 개성이 한양에서 의주까지 통하는 서관대로(西關大路)에 있어 개성부에서 청 칙사나 연행사(燕行使)를 대접한 일을 재현한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개성부에서는 칙사 접대 예산인 칙수를 중앙에 상납해야 한다. 순조 즉위 초만 하더라도 청 칙사가 1800년(순조 즉위년), 1801년(순조 1), 1803년(순조 3), 1805년(순조 5)에 내왕하여<sup>47)</sup> 개성부의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직면하였다.<sup>48)</sup> 이에 화자는 반의법을 활용하여 “풍속이 돈 후후고 인심이 순박된다”라고 언술함으로써, 칙사 대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개성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을 재현한다. 다음의 (다)는 「송양별곡」 제3단의 일부이다.

(다) 팔노형상 오식군인 힘쓰느니 청축일다

위의 (다)의 “팔노형상 오식군인 힘쓰느니 청축일다”에서 텍스트 표면상 청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주체는 “팔노형상”, “오식군인”이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순조실록』 1823년 7월 25일 기사를 통해 김이재가 풍덕부·

47) 『純祖實錄』 1권, 1800년(순조 즉위년) 11월 24일 壬寅; 『純祖實錄』 3권, 1801년(순조 1) 6월 22일 丁卯; 『純祖實錄』 5권, 1803년(순조 3) 윤2월 27일 壬辰; 『純祖實錄』 7권, 1805년(순조 5) 윤6월 4일 乙酉.

48)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02년(순조 2) 12월 28일 기사에는 “지금 객사(客使)가 해마다 계속되고 민력(民力)이 오래도록 이미 그만두었으니 저축된 것 또한 텅 비었다고 합니다(況今客使連年 民力久已罷矣 儲蓄亦云罄矣(『承政院日記』 1861책, 1802년(순조 2) 12월 28일 乙丑))”라고 보고한 개성유수 서미수(徐美修)의 상소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순조 초기에 칙사 1명에게 소요되는 도수(都數)가 기록되어 있다. 도절가(都折價)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1800년(순조 즉위년)에 54,663냥, 1801년(순조 1)에 51,635냥, 1803년(순조 3)에 62,143냥, 1805년(순조 5)에 68,970냥(『萬機要覽』, 「財用編」 5, <支勅>, ‘一勅所入都數’). 이처럼 순조 초기에 칙사 1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적게는 51,635냥, 많게는 68,970냥으로 평균 59,352.75냥이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보면, 칙사의 왕래가 잦을수록 개성부의 부담이 증감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성부 합병을 주청하기 위해 조선 정부에 복계(覆啓)한 사실<sup>49)</sup>을 상기하면, 「송양별곡」의 작자가 이 구절에서 비판하는 실제 대상이 김이재임을 추단할 수 있다. 다음의 (라)는 「송양별곡」 제4단의 일부이다.

(라) 지화 것드는곳의 현울을 어이알며/현울을 분변호듯 간목지하 쉬울  
 손가/고도의 찢친문헌 주신희기 어렵도다/…… (중략) ……/덕복소복 당이  
 런가 동년서인 비호신가/편사이중 런고로다 몽미지심 뉘금헬고/관풍선화  
 거류지신 병공출사 쑤니로다/영농단획 상사당은 도쳐의 버릇씨니/교셔유  
 셔 밝은영공 낫낫치 청덕인가/일녕일정 가다가서 소혜찢친 덕분인가/친소  
 호악 석은곳의 일편공심 뉘잇는고

영의정 남공철은 1810년(순조 10) 6월 25일에 개성유수에 제배되었고, 1811년(순조 11) 윤3월 15일에 좌유선(左諭善)으로 제수되기 전까지 개성유수를 역임한 적이 있다.<sup>50)</sup> 남공철은 개성유수를 지내던 1811년(순조 11) 4월 14일에 개성부의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남면, 소남면 및 사천면 이서 지역의 전세를 개성부에 이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sup>51)</sup> 또한 남공철은 우의정을 지내던 1820년(순조 20) 6월 21일에 개성유수 이문회(李文會)가 9년 전 남공철과 같은 내용으로 주청하였는데, 남공철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까닭에 조선 정부는 이문회의 주청을 수용하였다.<sup>52)</sup> 이처럼 남공철은 풍덕부·개성부 합병 이전에도 개성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 이문회·김이재를 도왔다.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지화 것드는곳”인 개성에서 현명함과 어리석

49) 『純祖實錄』 26권, 1823년(순조 23) 7월 25일 辛卯.

50) 『純祖實錄』 13권, 1810년(순조 10) 6월 25일 戊申; 『純祖實錄』 14권, 1811년(순조 11) 2월 27일 丙午; 『純祖實錄』 14권, 1811년(순조 11) 윤3월 15일 癸巳.

51) 『日省錄』 286책, 1811년(순조11) 4월 14일 辛酉.

52) 『純祖實錄』 23권, 1820년(순조 20) 6월 21일 乙巳.

음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화자의 언술은,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제안하고 그 결과로 풍덕향교를 철폐하게 한 현 개성유수 김이재와 전 개성유수 남공철을 비판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거류지신”, “교서유서 밝은영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류지신”은 곧 종2품 관찰사(觀察使)나 종2품 유수(留守)를, “교서유서 밝은영공”은 곧 종2품·정3품 벼슬아치를 의미하는데, 종2품 개성유수는 “거류지신”, “교서유서 밝은영공”에 모두 해당한다. 화자는 “거류지신”을 모신 생사당(生祠堂)은 도처에 널리 있어 귀하거나 특별하지 않고, “교서유서 밝은영공”, 곧 종2품·정3품 벼슬아치가 모두 청렴하지도 않고 고결한 덕행을 행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한다. 남공철, 김이재가 각각 전·현직 종2품 개성유수라는 사실에 의거하여, 화자가 남공철, 김이재를 비판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고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순조 시대 이전에 있던 대북·소북의 대립, 동인·서인의 대립 등 붕당정치를 상기한다. 화자는 붕당정치 시대를 뜻을 함께하는 같은 붕당의 구성원에게 호의를 베풀고, 뜻을 달리하는 다른 붕당의 구성원에게 적대적이었던[편사이증] 시기로 인식한다. 붕당정치가 성행하던 옛 시대 사람들의 관계를 풍덕부·개성부 합병한 당대에 적용해 보면, 남공철, 김이재는 풍덕부·개성부 합병에 뜻을 모은 가운데 호의를 베푸는 주체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서 김이재의 청을 들어주는 남공철이고, 호의를 받는 대상은 김이재이다.

아울러 “친소호악” 중 친밀함[親], 좋아함[好]은 김이재와 남공철을, 소원함[疎], 싫어함[惡]<sup>53)</sup>은 풍덕향교 복설운동을 전개한 유생들을 대하는 조선 정부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어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화자는 조성 정

53) “친소호악”은 “친소호오”의 오기(誤記)이다.

부가 ‘풍덕부·개성부 합병’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밀함, 소원함, 좋아함, 싫어함이 섞여 있으므로, 국사 결정에 요구되는 공평한 마음이 조선 정부에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전·현직 개성유수 남공철, 김이재의 부임지인 개성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고도(古都), 곧 개성의 학문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이것은 풍덕부를 합속하는 개성부 자체에 대한 강한 부정이 「송양별곡」의 기저에 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마)는 「송양별곡」 제4단의 일부이다.

(마) 척확지굴 이구신 회성의 스성이요/장괴의신 디시용은 공부자의 유  
 훈이니/직설이 몸이되어 요순을 못기워도/금수 월노의 종상이야 사양혈가/  
 시부표척 공부하고 명지정초 글시익켜/거벽사수 구치말고 진사급제 힘을쓰  
 소/교관교수 망통중의 문학지화 빠질손가/산천정기 이진하니 영웅이 업써  
 든지/엇지타 더관청함 취적교를 못넘는고/하날이 사람닐제 누을아니 쓰게  
 하며/나라히 사람쥔제 귀천이 업건마는/입신양명 일조로다 이곳의은 다르  
 도다

위의 (마)는 풍덕부의 혁파, 풍덕향교의 철폐로 구 풍덕 유생들이 개성 성균관 유생, 자하동·채하동 선비가 되어 과거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거령은 1470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개성인은 정치적·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때문에 화자는 이 여파가 구 풍덕 유생들에게 미칠 것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화자는 구 풍덕 유생들에게 이제 개성인으로서 입신양명은 어렵지만,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그 쓰임이 있고 나라에서 등용할 때 귀천이 없으므로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금의 굴욕을 참고 역량을 길러 나라에 쓰일 시기를 기다릴 것을 전한다.

다음의 (바)는 「송양별곡」 제5단의 일부이다.

(바) 옛날의 명신석보 오날날 그자손이/일비일타 이러하니 나도모른 일  
이로다

위의 (바)에서 말하는 명신·석보의 자손은 남공철, 김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남공철의 고조부는 대제학(大提學) 남용익(南龍翼)이고, 증조부는 대사헌(大司憲) 남정중(南正重)이고, 조부는 동지돈령부사(同知東寧府使) 남한기(南漢紀)이며, 부친은 대제학 남유용(南有容)이다. 남공철의 부친인 남유용이 정조(正祖)의 스승이었던 이력이 있어 1784년(정조 8) 음직(蔭職)으로 종9품 익위사(翊衛司) 세마(洗馬)에 출사하였고, 1792년(정조 16)에 식년 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하였으며, 그 해에 규장각(奎章閣)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선발되었으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개성유수·공조판서(工曹判書)·이조판서(吏曹判書)·우의정·좌의정(左議政)·영의정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또한 김이재는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이며, 김이재의 조부는 대사간(大司諫) 김시찬(金時燦)이고, 부친은 성균관대사성 김방행(金方行)이며, 그의 형은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이다. 김이재는 1790년(정조 14) 증광시 문과 병과에 급제하였고, 규장각 초계문신에 발탁되었으며, 개성유수·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刑曹判書)·한성부판윤·좌참찬(左參贊)·예조판서(禮曹判書)·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위의 (바)는 남공철의 선조, 김이재의 선조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명신·석보의 자손인 남공철, 김이재가 유생들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긴 풍덕부·개성부 합병에 대해 조선 정부의 여론을 주도한 일, 이에 의해 구 풍덕 유생들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 풍덕향교 철폐를 고발

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송양별곡」의 심층적 의미를 종합하면, 「송양별곡」은 개성인의 사치, 개성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개성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개성인의 입신양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 풍덕 유생들이 개성인이 되어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상황,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주도하고 그 결과로 풍덕향교 철폐를 초래한 영의정 남공철, 개성유수 김이재를 비판한 현실비평가사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작자의 의도는 「송양별곡」의 제3단·제4단·제5단의 일부에 숨어 있다. 이것은 「송양별곡」의 배경이 되는 풍덕부·개성부 합병, 풍덕향교 철폐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풍덕부·개성부 합병은 개성부의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사건으로 출발하였지만, 유생들의 존립 기반에 관계된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변모하였다.<sup>54)</sup> 넓게는 사유, 좁게는 풍덕향교 복설운동 참여 유생으로 추정되는 「송양별곡」의 작자는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 비판의식을 지니고 풍덕부·개성부 합병, 풍덕향교 철폐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풍덕향교 복설운동을 전개한 유생들과 더불어 1824년 경기감영, 비변사에서 유생들의 청을 수용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한 「송양별곡」의 작자는, 「송양별곡」의 창작이 조선 정부에 반하는 행위이며 「송양별곡」이 불러일으킬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예상하고, 자신의 속뜻을 감추어 우회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송양별곡」의 작자는 표면상으로는 기행가사, 권학가사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공철과 김이재를 비판한 19세기 현실비평가사를 창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양별곡」에 구현된 이러한 이중 서술은 「송양별곡」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54) 김태웅, 앞의 논문, p.216.

#### IV. 맺음말

이 글은 그동안 17세기 작품으로 분류된 「송양별곡」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성격을 고구하였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작자 미상의 「송양별곡」은 표면상 송양, 곧 개성 유람을 재현한 기행가사, 개성 성균관 유생과 자하동·채하동 선비에게 입신양명을 위해 학문을 권장한 권학가사를 표방한다. 하지만 「송양별곡」은 1823년(순조 23) 7월 25일 개성부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풍덕부·개성부 합병, 여기에서 파생된 사건인 1824년(순조 24) 2월 풍덕향교 철폐를 배경으로 하며, 개성인의 사치, 개성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개성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 개성인의 입신양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 풍덕 유생들이 개성인이 되어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상황, 풍덕부·개성부 합병을 주도한 영의정 남궁철과 개성유수 김이재를 비판한 19세기 현실비판가사로, 1824년 2월 풍덕향교 철폐 전후와 그해 여름 사이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양별곡」의 창작 배경, 이중적 서술 양상을 통해 확인한 「송양별곡」의 독특한 성격은, 넓게는 사유, 좁게는 풍덕향교 복설운동 참여 유생으로 추정되는 작자의 정치 참여의식, 비판의식 및 작자가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19세기 현실비판가사는 대체로 지배 계층을 비판하고 유교적 이념을 전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송양별곡」은 유교적 이념을 전복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들의 존립 기반인 유교적 이념을 공고히 다지려는 유생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송양별곡」의 이해와 지평을 넓기 위해 가사문학사적 측면에서 19세기 현실비판가사 「송양별곡」의 문학적 특질과 의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더욱 천착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자료

- 『國朝寶鑑』 80권,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DB(<https://db.itkc.or.kr/>)
- 『宣祖實錄』 6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英祖實錄』 52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1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3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5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7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13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14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26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27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純祖實錄』 28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承政院日記』 1861책,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 『日省錄』 286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 『萬機要覽』,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www.krpia.co.kr/>)
- 『松京廣攷』 권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개경기초자료([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gk.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gk.html))
- 『松都志』, 金埴 編, 1648,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 「송양별곡」: 「송양별곡」, 『만언스』, pp.13b-16b,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송양별곡」: 임기중, 「송양별곡(崧陽別曲)」,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http://www.krpia.co.kr/>)
- 「송양별곡」: 강전섭, 「〈崧陽別曲〉의 作者 摸索」, 『古典文學研究』 제6집, 1991, pp.443-451.
- 「송양별곡」: 이상보, 「송양별곡」,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pp.244-250.
- 「송양별곡」: 최강현, 「송양별곡(崧陽別曲)」, 『기행가사자료선집 I』, 국학자료원, 1996, pp.550-556.
- 『輿地圖書』: 『한국사료총서 제12-輿地圖書』(上), 대한민국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973.

- 『中京志』, 金履載 編, 1824,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 『한국시조대사전』, 박을수 편, 아세아문화사, 1991.
- 朴容大 외, 『增補文獻備考』 권39, 1908,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 尹愔, 『無名子集』,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李白, 『全唐詩』 권161, 「古風」,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quantang-shi/161/zh#n136390>)
- 班固, 「王貢兩龔鮑傳」, 『漢書』 권72,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han-shu/wang-gong-liang-gong-bao-zhuan/zh>)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http://encykorea.aks.ac.kr/>)

## 논저

- 강전섭, 「〈崧陽別曲〉의 作者 摸索」, 『古典文學研究』 제6집, 한국고전문화학회, 1991, pp.443-460.
- 김태웅, 「朝鮮後期 開城府 財政의 危機와 行政區域 改編」, 『韓國史論』 제41·42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9, pp.641-692.
- 김태웅, 「朝鮮末 開城府財政 補用策의 추이와 朝野의 동향」, 『歷史教育』 제101집, 歷史教育研究會, 2007, pp.191-225.
- 문광선, 「우리나라 5대 종의 하나인 연복사종演福寺鍾」, 『세계문화유산 개성』, 역사인, 2016.
- 박종진,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웠던 조세」, 『고려의 황도 개경』, 한국역사연구회, 2009.
- 박평식, 「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 『조선시대사학보』 제30호, 조선시대사학회, 2004, pp.61-98. (UCI : G704-000303.2004..30.004)
- 변광석, 「조선시대 개성 출신인의 지역 인식」, 『역사와 세계』 제43집, 효원사학회, 2013, pp.179-203. (UCI : G704-SER000000776.2013.43..008)
- 서성호, 「개경의 시장」, 『고려의 황도 개경』, 한국역사연구회, 2009.
- 안대회, 「18세기 후반 서울의 都市相과 尹愔의 시선」, 『대동문화연구』 제8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pp.55-84. (UCI : G704-000956.2015..89.016 )
- 양정필, 「조선시대 開城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개성인의 정체성」, 『中央史論』 제46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7, pp.51-85.
- 정순우, 「승양서원(崧陽書院)을 통해서 본 포은 정몽주의 정치사상사적 위상」, 『포은학연구』 제24집, 포은학회, 2019, pp.7-27. (DOI : 10.22866/poeun.2019.24..7)

**Abstract**

A merger between Poongdeok-bu and Gaeseong-bu in 1823 and  
Critical Gasa Sungyangbyeolgok

Kim, A-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reation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Sungyangbyeolgok.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genre of Sungyangbyeolgok without any known author is like Travel Gasa and Education Gasa on the surface, it compose about experience Sungyang(the old name for 'Gaeseong') travel and encourage learning for achieving fame and prestige to student of Confucianism at Gaeseong Seonggyun-gwan Academy and Confucian Scholar at Jaha-dong and Chaha-dong. But it is set in the time of a merger between Poongdeok-bu and Gaeseong-bu(1823) to replenish Gaeseong-bu's budget and abolition of Poongdeok Confucian School(1824), criticizes prime minister Nam, Gong-cheol and the Gaeseong governor Kim, Yi-jae who led the merger of Poongdeok-bu and Gaeseong-bu as a 19th century Critical Gasa. This unique nature of it is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riticism of the author, which is believed to be a Confucian Scholar or a student of Confucianism who participated in the Rebuilding Movement of Poongdeok Confucian School.

Key Word : Sungyangbyeolgok, Critical Gasa, Sungyang, Gaeseong, a merger between Poongdeok-bu and Gaeseong-bu, abolition of Poongdeok Confucian School, the Rebuilding Movement of Poongdeok Confucian School

김아연

소속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 일반연구위원

전자우편 : redindi11@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